

***도시근교 농촌주택의 공간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 침실공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Space Utilization in the Farm House of Suburbs of City

- Focus on Sleeping Room -

최승희* / Choi, Sung-Hee

임춘삼** / Lim, Chun-Sam

Abstract

This study purposes to grasp the change of dwelling space by the change of family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population in the rural area of suburbs of city that suppose to receive the influence of the cit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collect data about farm village houses in monographs and reference books, and study change factor of houses. To the selected village, we will interview local inhabitants and officials and observe and survey the farm village houses by visiting houses.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we will know the change of population organization that causes the change of room utilization. We know that farm village pepole have basic living articles in dwelling space. We expect that the farm village houses will become city houses only in the dwelling space. So the suburban farm houses must be planned as in relation with the city.

키워드 : 농촌주택, 공간이용실태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도시의 근대화 작업으로 시작된 산업화는 농촌의 인구를 도시로 유입시켜 농촌인구와 농촌주택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로인한 농촌의 도시화의 영향으로 과거에 없었던 가구류와 가전제품의 도입이 강하게 나타났다. 주택의 개조에 있어서는 단순히 방과 방사이의 통합이나 부엌에서의 형태적 변화를 들 수 있다.¹⁾ 현재의 농촌주택은 농촌지역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신축되는 주택의 대부분이 도시주택의 공간구성을 그대로 모방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는 농촌주택만의 특성이 결여된 공간을 창출하여 또 다른 기형의 주택을 만들 우려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도시근교 농촌지역에서 인

구의 변화에 따른 가구별 가족구성의 변화에 의한 주거공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농촌주택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또 어떻게 변화 할 것인가를 예측하여 앞으로의 농촌주택계획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며 농촌주택 표준화설계도의 작성시 도움을 되는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기존 농촌주택에 대한 연구의 성향이 단순히 주택의 배치와 형태를 연구의 대상으로 진행하여 뚜렷한 의견제시를 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공간을 연구대상으로 진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1.2 연구의 배경

도시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농촌은 지난 30년간에 걸쳐 큰 변화를 겪어왔다. 가전제품의 도입, 농촌의 근대화작업 주의식의 변화는 농촌주택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변화가 크게 진행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근교농촌주택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근교 농촌주택은 도시의 영향으로 인해 주거공간이 이

*정회원, 우석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 본 연구는 1998년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1)정혜정, 한국농촌의 주거공간 변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석사, 1981, p.2

용이나 변화상태가 타지역과는 큰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영농규모의 감소로 빈 침실공간의 활용도가 큰 변화를 보일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이용에 있어서도 여타지역과는 큰 차이를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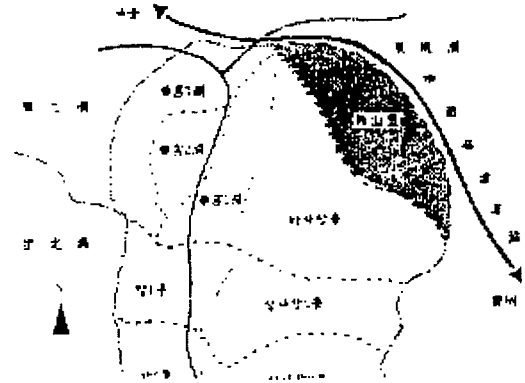
연구의 범위로는 주거공간 중 가장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침실공간을 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실의 명칭에 있어서는 현대주택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배제하고 전통주택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존의 연구논문 및 참고문헌에서 농촌주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통해 농촌주택의 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선정된 대상부락에서 이장, 반장, 주민과의 면담 및 조사원이 호별 방문하여 관찰 및 실측을 하였으며 인구구성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표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과거 10년 동안 세대원의 변화와 주거공간의 변화를 파악하여 앞으로 농촌주택 계획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2. 조사개요

2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조사대상부락의 특성과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1 조사대상 부락의 특성

조사대상부락인 교산동은 1989년 1월1일 이전에는 광주군 동부읍에 속하였으나 현재는 하남시에 편입되어 행정구역상으로는 시에 속하나 주변환경으로 볼 때 농촌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락이며 위치상으로는 서울의 외곽에서 남동쪽으로 약 7km, 하남시의 중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다. 따라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부락의 성격, 위치, 도시와의 관계에서 교산동을 도시근교농촌부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산동은 서울까지 약 20분 간격, 하남시까지지는 약 30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경작물은 70년대 후반까지는 오이, 토마토 등이 주종을 이루었으나²⁾ 현재는 재배농가가 감소하고 있다. 주택의 총 호수는 85호이나 총 156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1호당 약 2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 가구에서 세대주가 분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로 부터 이주하여 온 전세입주세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및 하남시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및 고시생, 공장종업원 등이 하숙 또는 자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상의 주거인수는 1996년 7월14일 현재 490명이며 86년 이후 현재까지 전입자가 256명, 전출자가 120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조사대상부락의 위치도

2.2 조사내용 및 방법

(1) 조사내용

조사내용으로는 조사대상부락인 교산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산동의 위치 및 가옥배치도를 작성하였다. 마을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건축년도,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건축면적 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인구구성, 가족구성을 알아보고 실태조사를 통해 실 공간의 이용현황, 공간의 변화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 예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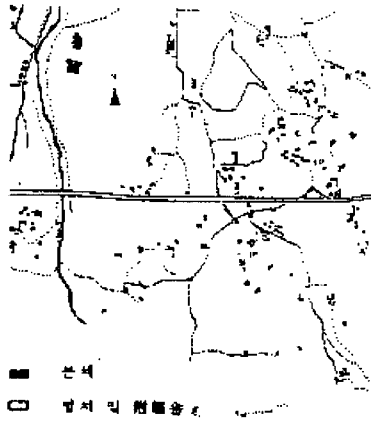
조사내용은 도시의 영향을 받고 주택의 변화가 발생한 부락을 선정하였고, 대상부락으로는 하남시 4개동, 미곡시 2개동, 구리시 1개동, 남양주군 4개동을 예비조사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6년 3월 3일 - 1996년 4월6일로 약 33일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마을 이장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을의 특성 및 현황을 파악하고 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였다. 조사인원은 2인 1조로 총 2인이 참여하였다.

• 본조사

조사내용은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1부락을 선정하여 (하남시 교산동 85호 중 25가구) 주택의 현황, 가족구성, 주거공간의 변화와 이용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기간은 1996년 5월 5일 - 5월 21일로 약 16일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2인 1조로 하여 1인은 주민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1인은 주택의 평면을 도식화 및 비디오 촬영, 사진촬영을 하였다. 조사인원은 2인 1조로 총 2인이 참가하였다.

조사대상지로 교산리를 선택한 이유는 도시의 영향을 받고 주택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구성 및 가족구성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2)농협연감, 농협중앙회, 1996년, p.247



<그림 2> 조사대상부락의 가옥 배치도

3. 조사분석

3.1 인구구성

인구구성의 변화를 보면 총 85가구에 주민등록상으로 49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1986년 이전까지 전출자가 120명, 전입자가 256명으로 전출자 보다 전입자가 배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교산리 주거현황

총 주택수	85호
총 세대수	156세대
주민등록상의 거주인수	490명
전 출 자	120명
전 입 자	256명

<표 2> 지역별 전출입자수 ()은 %

구 분	전입자	전출자	구 분	전입자	전출자
서울	89(33)	56(46)	경상도	10(3.9)	2(1.7)
광주군	74(28)	12(10)	충청도	12(4.6)	1(0.8)
경기도	50(19)	22(18)	교산리	9(3.5)	11(9)
전라도	4(1.5)	2(1.7)	외국	0(0)	3(2)
강원도	4(1.5)	1(0.8)	미확인	4(1.5)	10(8)
계			계	256(100)	120(100)

<표 2>에 의한 지역별 전입자 수를 보면 서울이 33%로 가장 많고 광주군이 28%, 경기도 19%, 충청도 4.6%의 순이며 전출자는 서울이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에 의한 현재의 교산리 주민의 연령구성을 보면 16-50세의 청·장년층이 254명으로 전체주민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연령별 인구수

구 분	남	여	연 령	남	여
0-5세	8	7	41-45세	15	7
6-10세	12	7	46-50세	5	7
11-15세	11	16	51-55세	13	8
16-20세	14	22	56-60세	7	6
21-25세	19	13	61-65세	3	2
26-30세	8	10	66-70세	0	5
31-35세	12	14	71-80세	3	11
36-40세	9	12	81세이상	1	3
계(총283명)				140	143

3.2 가족구성

<표 4>에서 조사대상가구의 가족구성을 보면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1976년에 5.9인에서 1996년에는 4.6인으로 1.3인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족수별 가구수

가 족 수	가 족 수(%)	
	1986년 7월	1996년 7월
1	0(1)	1(4)
2	3(12)	6(24)
3	1(4)	1(4)
4	1(4)	1(4)
5	4(16)	4(16)
6	6(24)	6(24)
7	4(16)	3(12)
8	3(12)	3(12)
9	2(8)	0(0)
10	1(4)	0(0)
평 균 가족수	5.9명	4.6명

<표 5> 가족형태별가구수

가 족 형	가 구 수 (%)		
	부재자포함	부재자제외	
Co	부부	7(4)	8(30)
Cb-k(f)	부부+자녀	3(30)	3(12)
B	결혼+자녀	1(12)	1(4)
B,C	결혼+자녀+손	9(4)	9(36)
C,C	부부+자+손	5(36)	4(18)
	계	24(20)	24(100)

<표 5>에 의한 가족구성형태를 보면 부재자 가족을 제외한 실 거주자만의 경우, 부부중 일방이 결혼+자녀+손(B,C)형이 조사대상 24가구중 9가구(36%)로 가장 많고, 부부만이 살고 있는 (Co)형이 7가구로 30%, 부부+자+손+(C,C)형이 5호로 20%, 부부+자녀(Cb-k(f))가 12%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단순가족형이 42%, 복합가족형이 58%를 보이고 있다.

3.3 취침공간의 변화

교산리의 총 85가구 중 주거공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25호

를 선정하여 대지면적, 부속사를 포함한 건축면적, 부속사를 제외한 본채면적, 주택의 평면, 침실수, 각 방의 이용실태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표 6>에서 보면 대지면적은 100평 이하가 36%이며 100평을 넘는 것이 64%로 도시지역의 택지에 비하여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속사를 제외한 주택면적은 11평에서 15평이 전체의 50%나

<표 6>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대지면적 (평)	가구수 (%)	건축면적(평)			
		부속사포함	가구수 (%)	부속사 제외	가구수 (%)
100이하	9(36)	20이하	8(32)	10이하	3(13)
101-150	4(14)	21-30	12(48)	11-15	12(50)
151-200	6(24)	31-40	4(16)	16-20	3(13)
201-250	3(12)	41이상	1(4)	21-25	5(21)
251이상	3(12)			26이상	1(4)
계	25(100)			계	25(100)

되고 부속사를 포함하더라도 20평이하가 전체의 32%나되 대지면적은 충분히 넓으나 반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본체의 면적은 협소함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현황으로는 가족당 인구수가 5인 정도이기 때문에 1인당 약 3평으로 주거면적이 상당히 부족하다 할 수 있다.

<표 7> 방의 변화상태

변화상태 실명 방수	취침방(100%)		안방과 합방(4) (%)	광으로 변화(%)	증축	부적으로 통합
	현재사용	빈방(3)				
안방 25(100)	25(100)	0(0)	0(0)	0(0)	3	0
건너방 24(100)	14(60)	4(17)	1(10)	5(23)	5	0
옷방 10(100)	3(30)	4(40)	1(10)	2(20)	0	5
사랑방 7(100)	4(57)	0(0)	0(0)	3(42)	0	0
부엌방 2(100)	0(0)	0(0)	0(0)	2(100)	0	0

<표 7>에서 조사한 25호에 대해 본체의 방별(안방,건너방,옷방,사랑방,부엌방)변화상태를 보면 안방의 경우 타 용도로의 용도변화를 볼 수 없고, 3개가 기존의 면적에서 증축하여 외벽을 새로 쌓았으며 2개가 다른 방과 합방되었다. 다른 방에 비해 많은 변화가 발생한 건너방은 총25개 중 5개가 광으로 용도변화 되었고, 증축된 경우도 5개로 나타났다. 현재 5개가 빈방으로 방치된 상태이고 14개만이 취침방으로 이용되고 있다. 옷방도 안방으로 합방된 방을 제외한 9개 중 4개가 빈방으로 남아 있고 2개가 광으로 용도변경되고 현재 3개만을 침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1개가 특히 하게 부적으로 통합되었다. 본체에 부속된 사랑방은 총 7개 중 4개가 현재 사용되고 있고 3개가 광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이 방이 변용된 주택은 가족수의 감소로 침실의 사용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어 빈방으로 방치하거나 광으로 변용되었으며, 가족이 감소하지 않는 주택은 개축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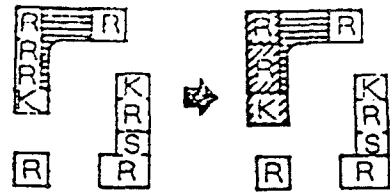
<표 8> 방별 변화상태(부속채/)는 전세방으로 임대

구분	과거	현재
	방수	방수
취침방	30(4)	35(26)
빈방	5	5
광	9	4

별채에 부속된 방의 변화 상태를 <표 8>에서 보면 1979년 이전에 30개가 취침방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35개로 5개가 증가 되었다. 이는 과거에 광으로 이용되던 것이 취침방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방 30개 중 4개만이 전세방으로 임대되었는데 현재는 취침방 35개 중 26개가 전세임대 또는 하숙방으로 전용되었으며 가족이 사용하는 방은 9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도시근교 농촌 부락에서는 과거에 빈방 또는 광으로 이용되어 왔던 방이 전세 또는 하숙방으로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세를 놓기 위해 오래된 별채를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에 의하며 25호 중 10호가 전세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침실의 변화를 case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합방한 경우(1)

1939년에 건축된 본채22평, 부속채 8평의 주택으로 현재 부부만이 거주하는 가정으로써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자녀의 전출로 인해 건너방과 안방사이에 있는 미닫이 문을 제거하여 안방으로 합방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림 3> 건너방과 합방한 경우

합방한 경우(2)

1954년에 건축된 주택으로 본채 16평의 주택으로 자녀가 전출하여 부부만이 살고 있다. 1983년 옷방과 안방을 합방하여 하나의 방으로 만들었다. 평수는 9.2평정도로 생활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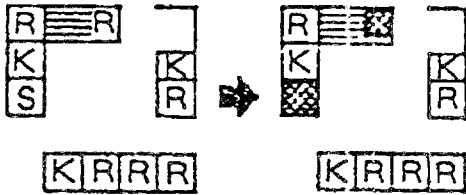


<그림 4> 옷방과 합방한 경우

3)방의 형태와 기능은 갖추고 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4)합방은 2개의 방을 합하여 하나의 방으로 만든 경우

(2) 광으로 변환 경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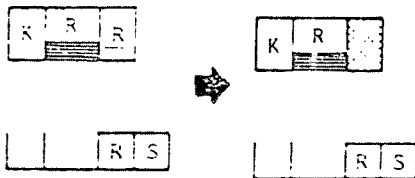
대지면적 165평에 건축면적 22평으로 1941년에 건축한 주택이나, 현재 부부와 자녀1인 만이 살고 있고 나머지 자녀가 전출하여 남아 있는 빈 방을 쌀이나 채소 종자 또는 간단한 농업용 물품을 보관하는 광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5> 광으로 변환 경우(1)

광으로 변환 경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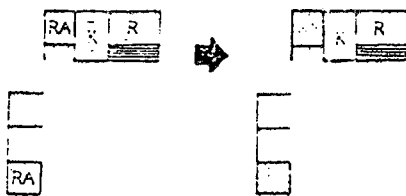
1948년 건축된 주택으로 대지면적 102평, 건축면적 21평으로 건너방과 사랑방을 수년간 빈방으로 방치해 오다가 수납창고의 부족으로 농산물이나 기타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6> 광으로 변환 경우(2)

광으로 변환 경우(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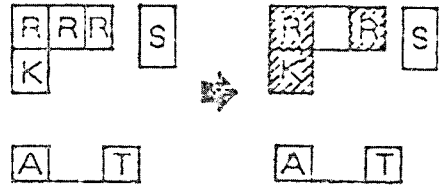
대지면적 92평에 건축면적 21평으로 건너방을 자녀들이 사용했으나 자녀의 전출로 인해 생활물품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7> 광으로 변환 경우(3)

(3) 증축한 경우(1)

가전제품의 도입으로 인한 공간의 협소와 생활공간에 대한 욕구의 변화로 좁은 주거공간을 개조하여 넓게 사용하려는 의도가 보여지고 있다. 신장식씨택의 경우 1945년에 건축되었고 건축면적은 25평으로 19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시 정부지원에 의해 본채를 벽돌로 개조하여 면적을 넓게하였다. 부엌의 경우 바닥 높이를 조정하였고 취사도구를 수납하는 공간을 확보하였다.



<그림 8> 증축한 경우(1)

증축한 경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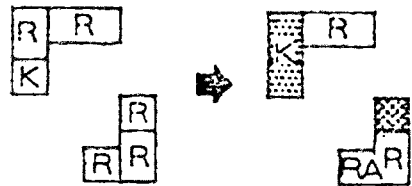
안방의 협소로 옷방과 안방을 합방하면서 내부기둥에서 1m씩 늘려 방의 크기를 조절하였다. 안방의 평수는 12평으로 생활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넓은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



<그림 9> 증축한 경우(2)

(4) 부엌과 통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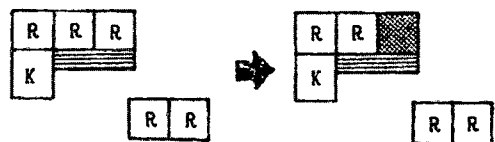
대지면적 173평에 본채10평, 부속채7평의 주택을 1959년에 신축하였으나 가족수의 감소로 인한 여유실의 증가로 부엌과 옆방을 통합하여 주방으로 개조하였다. 그러나 DK공간은 확보하였으나 주방으로써의 공간이 너무 넓어 부엌이라기 보다는 방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림 10> 부엌과 통합한 경우

(5) 빈방으로 방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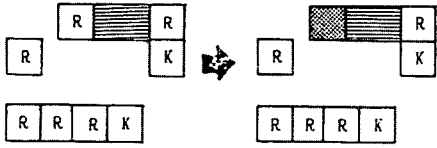
대지면적 132평에 건축면적 24평으로 1939년에 건축된 주택이나 가족수의 감소와 농업규모의 축소로 현재는 방을 사용하지 않고 빈방으로 방치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건너방 4개, 옷방 4개가 현재 빈방으로 남아있다.



<그림 11> 빈방으로 방치한 경우

(6) 전세를 내준 경우

도시근교에 인접해 있어 도시근교로의 출근이 가능하여 전세를 준 경우가 부속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4개의 방만이 전세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26개가 전세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12> 전세를 내준 경우

3.4 침실의 배치형식

본체를 중심으로하여 침실배치 변화과정과 침실공간의 형태적, 기능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주택의 유형을 재래식 주택, 부분개량형주택, 새마을형 주택, 자유형주택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I형은 재래식 주택과 부분 개량형주택으로 1970년대 이전에 건축된 주택으

구분	침실 배치형식
I형 1970 이전	
II형 1970~ 1980	
III형 1981~ 현재	

<그림 13> 침실의 배치형식

로하고 II형은 새마을형주택으로 1970년에서 1980년까지 건축된 주택, III형은 자유형주택으로 1981년부터 현재까지 건축된 주택으로 정의 하였다. I형은 방+부엌+방+방+마루, 방+방+부엌, 방+대청+방+방으로 -자형과 7자형의 유형에 뒷마루가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안방은 타용도로의 변화나 합방을 볼 수없고 건넌방, 옷방이 형태적 기능적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II형은 새마을 운동의 정책적인 영향으로 건축된주택으로서 건축재료, 건축형태가 도시주택의 영향을 받아 겹집형태를 볼 수 있고 거실형태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공간의 변화는

빈방으로 방치, 타실과의 합방, 증축현상은 거의 없고 광으로의 변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III형은 최근에 건축된 것이 대부분으로 방, 식당, 거실, 현관,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형태로 I형의 공간배치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II형의 평면구성은 농촌주택보다는 도시형주택의 일반화된 것이어서 농촌주택의 평면유형이 도시주택의 평면구성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의 변화는 빈방, 합방, 증축현상은 볼 수 없고 광으로의 용도변화만을 볼 수 있다.

3.5 취침공간의 이용실태

주택의 취침공간 이용 측면을 살펴보면 가족원의 전출로 인한 빈방은 방치하거나 광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전세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재래 농가 주택의 경우 방의 면적이 3mx3m 내외로 소규모인 것이 많은데 현대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비롯한 생활용품의 유입으로 실제 거주공간이 더욱 협소해져 방의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청에 미닫이 문을 설치하여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축된 주택에서는 대부분이 거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과거와 현재의 취침장소

구분	안방		건넌방		옷방		사랑방		부엌방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주	1			1						
주+처	19	13	1	1						
주+처+자	3	4	2	2						
처+자	4			1						
모+자		1	2	1	1	1				
부	1	1								
자+부			2	1						
자+부+손				1	1					
자	1	2	10	3	7	2	2	2	1	
제		1	1	1		1	1			
모	1	2			1					
모+부	3				1					
제+자					1					
계	25	25	19	13	11	3	3	2	1	0

안방 : 안방은 25가호 모두 침실로 사용하고 다른 방과 통합하여 면적을 넓힌 경우가 2호, 증축한 경우가 3호로 나타났으며 안방 25개소의 비치 물품은 TV 17개, 장롱 14개로 가장 많고 전화, 옷장, 책상, 찬장, 설랍장, 문갑, 화장대, 오디오, 뒤주, 비디오 등 다양하다. 또한 안방은 대부분 부부의 침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족의 공동생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건넌방 : 건넌방의 24개 중 13개가 가족이사용하고 있으며 전세방으로 1개, 안방과 통합 1개, 빈방4개, 광으로 용도 변경 5개로 과거에는 주로 자녀가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지 않다. 이 방에는 TV, 장롱, 책상 등이 주로 비치되어 있다.

옷방 : 옷방은 현재 10개중 3개만이 침실로 사용되고 빈방4개, 안방과의 합방 1개, 광으로의 용도변경이 2개로 나타났다. 이방은 자녀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주로 장롱, 책상이 비치되어 있고, 기타 TV, 옷장, 이불, 뒤주, 침대, 냉장고 등도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사랑방 : 사랑방은 7개 중 4개가 현재 사용되고 있고 3개가 광으로 용도변경 되었다. 자녀가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농, 책상, 찬장, 화장대, 재봉틀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상에서 각방의 변화 및 이용실태를 종합해 보면 안방은 합방 및 증축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너방, 옷방, 사랑방 등은 방이 빈 경우 방치해 두거나 광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사대상 25호 중 10호가 세를 내주고 있으나 본체에 있는 방은 빈방으로 방치 또는 광으로 사용하는 한이 있어도 셋방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별채에 있는 방을 셋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라이버시가 주 원인이 되겠으나 농촌주택의 대부분이 본채와 별채로 구분되어 있어 별채를 임대해 주는 편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마루: 조사대상주택에서는 주로 대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서 단란, 접객, 작업, 곡물건조, 곡물수납 휴식 때로는 취침 등의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루의 형태적 변화는 방한, 방풍을 목적으로 전면에 미닫이문을 설치한 것으로서 조사대상 25호 중 18호에 달한다. 이는 기능적으로 볼 때 농작업과 관련한 행위가 줄어들고 TV시청, 단란, 휴식, 식사, 접객 등의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대청이 도시형주택의 거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치물품도 TV, 전화, 전축, 소파, 화분, 석유폭로 등 거실에 필요한 물품이 많이 비치되어 있으나 거실에 두어서는 안될 찬장, 옷장, 뒤주,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물품을 둘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며 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장소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표 10> 가구 및 가전제품 비치장소<본채>

구분	안방	건너방	옷방	사랑방	계
TV	17	7	1		25
장농	14	12	3	1	30
전화	8	2			10
옷방	6	4	1		11
책상	6	7	4	1	18
찬장	2	4	1	1	8
서랍장	4	1			5
문갑	4				4
화장대	3	4	2	1	10
전축	2				2
이불	1	2	1		4
뒤주	1	1	1		3
재봉틀				1	1
비디오	1	1			2
의약품				1	1
침대		1	1		2
냉장고		1	1		2
계	69	47	16	6	138

3.6 부엌공간의 이용실태

농촌주택에서 개량이 가장 시급한 공간이 부엌이라 할 수 있다. 부엌은 위생적이어야 하고 능률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용이하지 않지만 많은 농가에서 재래식 부엌을 현대식부엌으로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부엌의 형태를 <표 11>에서 살펴보면 I형인 재래식이 3호(12%), II형인 부분개량형이 6호(24%), III형인 개량형이 16호(64%)로 조사되었다. 이는 재래식형태를 거쳐 부분개량식의 형태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농촌지역은 설비의 개량이 이루어져 자의적 타의적 요인에 의해 입식부엌의 도입이 예상된다. 부엌내에서의 수납물품을 살펴보면 취사와 난방의 개선으로 인해 부엌내의 연료의 수납은 2.6%에 불과하며 현대식 주방가구의 보급으로 찬장, 가스렌지, 냉장고, 싱크대는 생활필수품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부엌의 형태

부엌	부엌형태	가호수(%)
I	재래식	3 (12)
II	부분개량형	6 (24)
III	개량형	16 (64)
계		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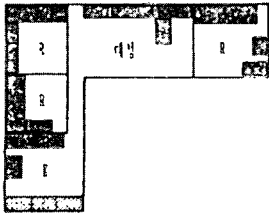
주방가구의 증가로 인해 부엌 주변 면적이 부족하여 부엌-토방, 부엌-뒤란, 개구부앞쪽에 찬장, 냉장고 등의 주방가구가 놓이게 되어 부엌면적이 혼잡하고 밀폐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비좁은 부엌의 공간을 융통성있게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이의 방법으로 부엌내에 여러층의 선반을 설치하여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벽을 헐어 취사연료나 식기류를 수납하는 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엌의 형태적 변화를 케이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방가구와 취사도구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협소한 부엌면적을 융통성있게 활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표 12> 부엌내의 수납물품

종류	갯수(%)	종류	갯수(%)
찬장	19(25)	세탁기	4(5.2)
가스렌지	28(25)	식탁	3(3.9)
냉장고	22(28)	쌀통	3(3.9)
싱크대	19(24)	장농	1(1.2)
탈수기	4(5.2)	나무	2(2.6)
계			77(100)

(1) 부엌면적을 늘린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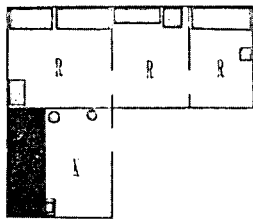
신장식씨택은 1948년 건축되었고 건축면적 25평이며, 부엌면적은 5.2평으로 19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시 정부지원에 의해 본채를 벽돌로 개조하고 부엌면적을 1.3평정도 늘렸다. 부엌내의 공간의 변화는 부엌 바닥높이를 높여서 다른 실의 바닥높이와 30cm~40cm정도 차이를 두고 부엌의 하단을 높려 취사도구를 수납하고 있다. 과거 나무를 저장했던 공간은 개조하여 식기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부엌바닥을 장판으로 깔아 부엌에서 대청으로의 연결통로를 만들어 부엌 대청의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 14> 부엌면적 확대

(2) 부엌내부를 개조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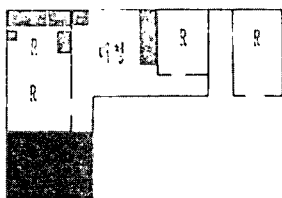
대청과의 융통성, 취사, 난방의 용이함을 위하여 부엌의 level차를 낮춘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의 경우는 부엌의 바닥을 콘크리트로 개조하여 부엌과 마당, 뒤란 등의 이용시 흙과 먼지 등이 묻지 않게 하였다. 또한 슬을제거하고 그 위에 가스렌지 등을 놓고 취사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15> 부엌공간의 개조

(3) 입식부엌으로 개조한 경우

부엌과 방의 레벨을 같게하고 부엌에서 식사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부엌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쌀, 채소류 등을 씻을 수 있는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다. 부엌에서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으며 취사도구로는 가스렌지, 난방도구로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6> 입식부엌으로 개조

3.7 부속사 공간의 이용실태

농촌주택의 공간중에서 수납공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창고, 헛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농촌주택에서는 필수적인 공간이며 영농규모와 방식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농작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농가의 영농규모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영농규모

영농규모(평)	가호수	영농규모(평)	가호수
0~1000미만	6	3000~5000	1
1000~3000	10		
계			17

25호중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17호로 이중 1000평에서 3000평규모의 비율이 가장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속사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부속사의 이용실태

실명	변화상태		현재 사용	증개축
	실수			
창고	10		10	0
헛간	9		9	2

창고10개, 헛간9개로 현재 전부 사용하고 있으며 헛간 2개가 증개축되어 있다. 이공간에는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세를 준 경우는 세입자들의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

4. 결론

이상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나타난 결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주거공간의 이용에 큰변화를 주는 인구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약 10년동안의 가족당 가구수는 5.8명에서 4.6으로 감소되었고 연령구성비는 전입자와 도시근교에 위한 특성으로 젊은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나타났고, 이에의한 가족형에 있어서도 단순가족보다 복합가족이 많이 보이고 있다. 주택의 변화를 살펴보면 형태적 변화와 기능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주택에서 증축, 합방의 형태적 변화와 빈방, 광으로의 용도변화의 기능적변화를 볼 수 있다. 주택의 형식은 재래식주택, 부분개량형주택, 새마을형주택, 자유형주택이 있다.
- 2) 가구 및 가전제품의 비치는 안방, 건너방과 같이 거주하는 공간에는 TV, 장농, 전화 등의 기본 생활 용품을 주로 비치하고 있으나 옷방과 사랑방은 이용빈도가 적은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 취침공간으로의 이용은 과거 안방을 주로 부부가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부부와 기타의 가족구성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건너방은 과거에 자녀가 주로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가족원 모두가 이용하고 있다. 옷방과 사랑방은 자녀의 취침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 3) 부엌은 재래식형태에서 개량식(입식)의 형태로의 변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방용품의 변화로 이를 수용할 부엌에서의 다양한 형태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속사의 경우는 영농규모와 밀접한 경우를 볼 때 대부분이 소규모영농을 하고 있어 창고와 헛간은 과거와 같은 기능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

우 물품의 수납과 세입자를 위한 수납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4) 종합해보면 금후의 농촌주택은 과거와 같이 침실수만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것보다 공간의 규모를 확대하고, 가족수에 대응한 주택 개발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농촌주택의 변화는 도시와의 발전으로 관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농촌주택의 형태 및 공간구성은 도시주택 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임춘삼, 농가주택의 공간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0.
2. 전경배, 한국농촌주택 및 취락구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 1974.
3. 박병길, 농촌주택의 공간이용실태와 취락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6.
4. 유응교, 한국농촌의 정주모델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82.
5. 김성배, 농가의 건물배치 및 주택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산대원, 석사논문, 1981.
6. 정혜정, 한국농촌의 주거공간 변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81.
7. 김철호, 전통주거공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85.
9. 김용미, 한국농촌마을의 건축적질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5.
10. 송년준, 농촌개량주택의 시설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1981.
11. 엄인섭, 농촌개량주택의 공간활용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1983.
12. 이재우, 농가주택의 공간구성과 부속사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통권 제110호, 1983. 11
13.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과제(1-6차),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1992.
14. 농어촌주택의 모듈적용 표준설계연구, 과거처, 1990
15. 농협중앙회, 농협연감, 1990.1992.1994.1996

<접수 : 1998. 4. 30>